**설날 미사(2018년 2월 11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걱정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걱정이 끊일 때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심리학자 연구를 보니까, 걱정하는 것의 약 70%는 당장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걱정의 2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때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아, 그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눈에 뭐가 씌여 가지고, 사고치는 바람에...’, ‘그때 그 첫사랑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등등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바꿀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나머지 10%는 사소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당 갈때 뭐 입고 가지?’ ‘오늘 저녁은 뭘 해먹지?’ ‘내일 비가 온다는데 어쩌지?’ ‘내일 날씨가 춥다는데...’ 등등 사소한 걱정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격언 중에도 ‘걱정이 팔자’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걱정하는 팔자인가 봅니다. 늘 이런 저런 걱정들을 하고 사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사실 다 쓸데 없는 걱정들입니다.

티베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정말 걱정이 없겠다.” 즉, 걱정해 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 해 본들 뭐 하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거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단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걱정하고 사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돌봐주실텐데, 뭘 그렇게 걱정 해. 걱정하지 마!”

흔히,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이 다 잘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늘 손해만 본다면 기분이 좋지 않고 불행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인생이 늘 기쁜 일만 생기고 기분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이 늘 잘 풀리고 생각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인생이 생각한 대로, 기대 대로 잘 풀릴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이 다음에 기회가 되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가서 행복할수 있으려니 하고 생각 하면, 살아 생전에는 절대 행복해 질 수 없을 겁니다. 상황이란 상관없이,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 행복 해야 합니다. 지금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고, 지금 행복할 수 없다면 나중에도 절대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늘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삽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웃으면 행복해 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 지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복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한 번 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눈 딱 감고 그냥 질러 버리세요. ‘올해 성지순례 간다는데, 어휴 가게 일도 해야하고, 무슨 일이 또 걸릴 것 같고, 이런 저런 일이 많아서 힘들겠네’ 하고 생각하면, 평생 성지순례 가기 힘듭니다. ‘이 다음에 좀 여유 있을때, 그때 가야지’하고 생각하다보면, 평생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냥 질러 버리세요. 눈 딱 감고.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기분 좋게 한번 질러 보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 다니던 직장 때려 치고, 사귀던 여자 친구도 헤어지고, 신학교 들어간 것도, 따지고 보면, 눈 딱 감고 그냥 질러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까짓거, 인생 한 방인데, 신부 되서 예수님 따라서 한 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질러버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걱정만 많이 하고, 생각만 많이 하다보면, 아무 것도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생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늦죠.

늘 기분 좋게 살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기쁘게, 그리고 재미있게 사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 합니다. “신부님,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성지 순례는 어떻게 가고, 맨날 재밌게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굴곡 많고, 힘들고, 바쁘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그 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슴 깊이 참된 행복과 하늘 나라의 기쁨을 가득 품고, 세상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걱정 근심 없이... 그러니 어떤 고난이 닥쳐도 담담하게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었죠.

우리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좀 닮아서, 늘 기쁘게, 마음 가득 하늘 나라의 행복과 희망을 품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품고 삽시다. 그것이 인생 멋지게 폼나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너그럽게 서로 나누고, 기분 좋게, 서로 축복 많이 해주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이쁘게 좀 삽시다! 행복하게 좀 삽시다!

오늘은 설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이죠. New Year 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지요. 한국의 명절은 생각만 해도 참 풍요롭고 따뜻합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정을 나눕니다. 가족이라는 말 처럼 따뜻한 말이 없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수 있는 것은 가족 끼리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겪고, 또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함께 나눕니다. 그런 가족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런 가족 공동체와 비슷합니다.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겪게되는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인 미사가 우리를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는 연결 고리가 됩니다.

우리 전통 명절에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랑, 나눔, 행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눌때 서로가 참으로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은 참으로 가슴에 울립니다.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언제 인생 끝이 올지 모릅니다. 세월이 무지 빨라서 생각처럼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나누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더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순간 순간 행복하게 사시면 인생이 다 행복해 집니다.

풍성한 설날 명절 처럼, 늘 마음 포근하고, 따뜻하게,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신앙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